

# 내년도 학교현장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 전북도교육청,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 우편·방문접수 통해 제출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사업의 제안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2018년 학교현장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도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등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 집행 사업)이며 단위학교에서 시행되지 않는 참신한 내용의 사업은 심사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자산취득성(악기 컴퓨터 등) 물품을 다량 구입하는 사업 △사회 봉납성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사업 제출은 온라인 접수(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http://www.jbe.go.kr) 주민참여 예산제), 우편·방문접수 등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사업은 예비심사를 통해 대상사업 분야별 2배수 이내를 선정한다 9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30주년 기념행사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20일 전주시청 강당과 전주오거리문화광장 등에서 열린 가운데 기념행사에 참석한 봉사대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교통사고사망자 5,000명 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결과를 합산하여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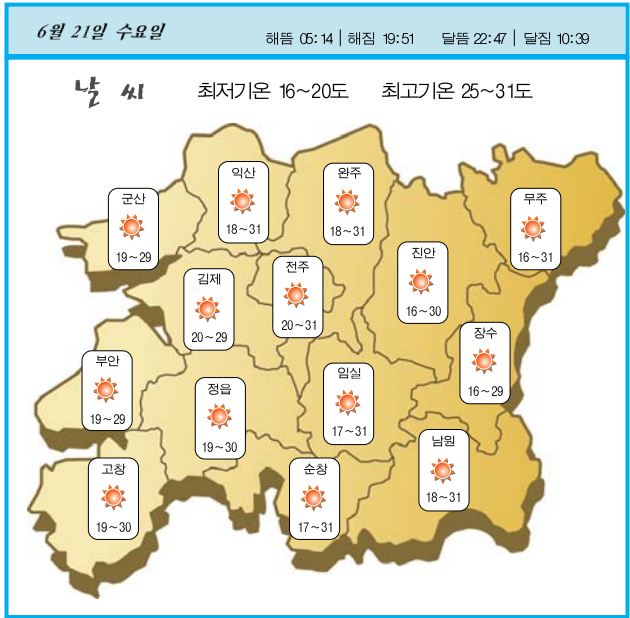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하여 최종 40개 내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당 1500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사업 제안자 및 사업추진 우수 교직원에게는 교육감상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2018학년도 시행할 공모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미리 선정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

사업은 주민들에게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교육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위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18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참여하게 될 교수위촉입학사정관 위촉장 수여 및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서약식을 갖고 평가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대는 지난 19일 오후 대학 박물관 강당에서 교수위촉입학사정관 68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참여 위촉식과 함께 윤리강령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윤리강령 서약식에는 전임입학사정관 13명 및 교수입학사정관 2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남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 앞서 "우수학생 유치와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교수·교수위촉입학사정관 및 전임입학사정관들은 '본격적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앞서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학생 선발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제반 윤리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한편, 전북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한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돼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학교 정길도 교수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정길도 교수팀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용해 뇌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위치와 변이 등을 규명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부가 뇌질환 예방·치료기술, 신체장애 극복기술, 뇌기능 강화기술 등 뇌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에만 4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사업이다.

정 교수팀은 정부로부터 5년간 37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순행유전학적 접근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지



능 및 뇌질환 규명 원천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나선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유전자 규명 기술개발과 뇌질환 예방·치료 사업에 도입 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관련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 교수팀은 수학과 컴퓨터과학, 생명과학의 융합연구방법론의 일종인 '순행유전학 접근법'으로 뇌 자연지능의 특성을 인공지능 개발에 접목해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질환 유발 유전자 규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질환 유전자와 돌연변이 원인 등을 규명하고 표현형 분석을 위한 순행유전학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순행유전학 접근법으로 자연지능의 시냅스 연결망 분석을 통해 시냅

스 퇴화가 기능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동물 모델링을 통해 지능의 퇴화 특성도 규명한다.

또 이러한 자연지능 특성을 인공지능 개발에 접목해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개발, 뇌와 유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등과 국제 공동연구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정길도 교수는 "고령화의 가속화로 뇌 관련 질환은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뇌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및 뇌졸중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자연지능 및 뇌질환 연구를 통해 여러 뇌 현상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내달 대입 수시 모의캠프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수험생들에게 대입 면접전형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 25일 제6회 대입 수시 모의캠프를 추진한다. 고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참가자를 추천받고 있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입 모의캠프는 도내 고3학년 4백명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학사정관과의 개인별 맞춤형 모의 면접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생들을 학교 학급수 대비 균등하게 배분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지원자를 균형 있게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전국 20여개 대학 소속 40명의 입학사정관을 초빙하고 70명의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로 면접위원들을 구성할 예정이다.

모의 면접 등시 학생은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인성과 전공 관련 등의 내용으로 20분간의 개별 면접을 받게 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전주시 보건소와 비만관리 '맞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주시 보건소와 비만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일 오전 전북대 분부별관 1층 이노카페에서 이철로 단장과 김경숙 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사업으로 전북대 교직원과 학생들 중 비만(BMI 기준 남자 20%, 여자 28%이상)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건강검정 및 체성

분 분석을 통해 정확한 비만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영양 절주 구강, 심비혈관관리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운동 등을 통해 비만도를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단장은 "양 기관 공동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비만연구센터(센터장 차연수)는 10여 년 동안 비만 관련 연구·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비만예방과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점의 '보급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